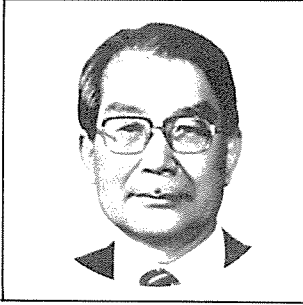


“科學의 날에 생각한다”



洪文和
(서울대명예교수)

과학의 날, 과학의 달에 즈음하여 과학의 기능과 역할이 무엇이며 우리나라의 과학의 位相이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만 하다.

경제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의 진보발전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물론 과학과 기술의 逆機能을 경계하는 문명론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로서는 아직 그런 단계에도 달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는 과학을 활짝 開花시켜볼 필요가 있다. 그만큼 현대 세계에 있어서의 과학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은 놀랄만 하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치가 생기고, 과학의 날이 제정된 이래 종합적이며 계획적인 과학기술 진흥시책이 실시되고 있어서 괄목할만한 발전을 이룩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세계적 수준과 비교하면 커다란 격차가 있어서 노력주도형의 공업으로부터 기술주도형으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의 과학발전과 기술혁신이 크게 요망되고 있는 것이다.

과학기술 새로운 개발이 국가적이며 최우선적인 과제의 하나이지만 연구활동에 알맞은 풍요한 풍토에서만 꽃이 피고 결실을 얻을 수 있다.

그와 같은 풍토에서 창의적인 연구활동을 꾸준히 계속하는데서 비로소 과학기술을 뿌리로 내릴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과학인재를 긴 안목으로 양성하고 적재적소로 배치를 하여 각자의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급하다고 하더라도 「臨渴掘井」식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뿐만 아니라 아까운 인재들도 중하차시키기 쉽다.

벌써 꽤 오래된 이야기 이지만 브레인·드레인 문제 때문에 염려가 되던 시기도 있었다. 선진 외국에서 업적을 내고 있는 우리 과학자들이 거기에 머물러서 귀국하지 않는 경향이다. 그러나 과학행정을 올바르게 하여 지금은 그런 문제가 완전히 해소가 되고 도리혀 받아드릴 곳이 모자라서 즐거운 과학자들이 오붓하게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하였어야 할텐데 연구기관이나 과학행정기관의 管理를 맡게 하였다가 불안정한 인사이동으로 포부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채 물러나게 된 예가 적지 않았다. 바라건대 적임자라고 발탁되어 그 자리를 맡겼으면, 업적이 나올 수 있는 충분한 시간적 안정성이 주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일반국민의 과학기술에 대한 인식과 교양의 수준이 아직도 충분치 못하여 우수한 과학기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할 수 있는 정치적 또는 世論적인 기반이 박약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하여튼 과학기술정책의 장기계획을 人材의 양성에 두어야 함은 말할나위도 없다. 유럽이나 미국의 文理系統別 학생의 비율은 1:1 내지는 3:2 인데 비하여 우리나라는 과학기술계통의 비율이 엄청나게 적다는 사실이 시정되지 않고는 理工系 과학기술자의 부족때문에 생산활동의 발전에 애로가 될것은 明若觀火한 사실일 것이다.

일본의 과학기술 수준이 지금은 세계의 첨단이라고 되어 있지만 얼마전까지만 하더라도 창조성이 없이 모방위주이었다고 혈뜻기도 하였다. 아닌게 아니라 과학기술의 독창성이나 과학정신에 있어서는 우리의 조상들이 일본보다 앞서고 있었다는 사실은 科學史가 입증하고 있는바이다. 「實事求是, 利用原生, 經世致用」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조선조중엽의 우리의 實學者의 뜻이 그대로 수용 발전되었다면 우리는 일본 보다 훨씬 앞서서 과학기술의 선진국이 됐을것 아닌가.

그러나 실학자들의 實用, 實證, 자유주의적인 학풍을 당시의 관학이던 朱子學에 대한 異端이요, 斯文亂賊이라고 하여 기를 펴지 못하게 하는 바람에 우리의 소중한 과학의 싹이 말라버렸다는 역사적 사실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 인재의 양성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님으로 장기계획적으로 양성을 계속하는 동시에 우수한 과학기술자를 행정, 교육, 산업 등 분야에 흡수하여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안정성과 처우개선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요새 우리나라를 보면 體能과 藝能을 즐기는 인구가 급속히 증가되어 가고 있기때문에 올림픽의 금메달리스트, 세계적인 예술가들이 많이 배출되고 있다. 과학기술이 발전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국민 일반에 대한 과학기술의 보급이 필요하며 과학이 생활화되고, 생활이 과학화되는 풍토가 필요하다. 과학인구의 저변확대가 이루어 지려면 과학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소년기에 자연관찰나 기계공작등에 몰두하지

않는 아이들이 없을 정도로 사람은 본능적으로 과학과 기술에 대한 호기심을 지니고 있게 마련이다. 소년시대에는 모든 소년들이 과학자이던 것이 학교가 상급으로 올라갈 수록 과학을 기피하는 학생이 증가되어 가는 것은 과학교육의 시설이나, 교사, 또는 방법 등에 있어서 무언가 시정해야할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진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제3공화국시절에 「전국민 과학화 운동 촉진대회」가 과기처당국,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학기술진흥재단등이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전개하였다. 이와 아울러 科總에는 「새마을기술봉사단」이 결성되어 국민의 과학기술향상을 위한 啓導 및 보급사업을 전개하여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기도 하였다. 그와 같은 바람직한 과학기술의 보급운동은 꾸준히 계속되었어야 하는데도, 시대가 변동됨에 따라 자취를 감추게 되었음을 지금도 애석하게 느끼는 것은 필자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의 모든 분야학회가 총망라되어 있는 科總이 다시 중소기업, 농림수산업, 국민보건등에 있어서 기술의 보급과 지도봉사를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에 커다란 공헌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와 아울러 국민일반에 대한 과학기술의 보급운동으로서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동시에 ① 과학박물관의 증설과 시설확충을 통한 실지교육 ② 공공도서관의 과학기술 관계 문헌을 충실하게 하는 동시에 읽기쉽게 해설된 과학기술관계 도서의 출판 ③ 각종의 과학기술관계 행사, 전시회등을 자주 개최하여 일반 대중들로 하여금 과학기술에 대한 친근감을 갖도록 하며 그와같은 사업을 실시하는 민간단체를 육성하도록 할 것 ④ 과학기술자로서 연구, 개발등에 업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포상제도를 강화 동시에 사회적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과학의 날에 즈음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놀라운 발전을 다시한번 축하하는 동시에 「走馬加鞭」식으로 몇마디 짧은 소견을 추가하였음을 양해하기 바란다.